

“풀타임 최원준 기대해”

‘감 잡은’ 최원준이 KIA 타이거즈의 공·수·주 의 핵심 선수로 뛴다.

KIA의 2020시즌 성과 중 하나는 최원준의 성장이었다. 2016년 입단 당시부터 ‘특급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고, 기대할 만한 실력도 보여줬지만, 기록이 문제였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중견수로 시작했던 지난해에도 초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부상 병동’에서 기회를 잡은 최원준은 시즌 막판 가장 뜨거운 선수 중 하나였다.

입단 후 가장 많은 123경기에 나온 최원준은 0.326의 타율로 35타점, 72득점으로 가장 좋은 성적표를 작성했다.

올 시즌 최원준은 KIA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리드오프로서의 공격, 빠른 발을 활용한 주루 그리고 외야의 상수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소피해 소피 선수로서도 주목을 받는다.

남다른 기대 속에 출발하는 2021시즌을 두고 최원준도 “작년 후반부터 좋아져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비시즌부터 준비를 잘했다. 기대가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 ‘루틴’을 찾은 게 최원준 변화의 원동

KIA 핫 플레이어

지난해 123경기 0.326 타율·72 득점

빠른 발 강점 공·수·주 고른 활약

변화구 약점에 투구폼 40번 교체

출루율 높이려 ‘공 보는 눈’ 키워

체력 준비 끝... 144경기 완주 목표

력이 됐다.

최원준은 “2019년까지 기록이 심했다. 작년에 타격 코치님들, 감독님한테 조언 많이 들으면서 나만의 루틴이 생겼다. 시합 전에 연습 방법이 생겨서 후반기 기록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원준은 감독실 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 당시 윌리엄스 감독은 최원준과 1시간 넘게 타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젊은 선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최원준은 “프로 입단해서부터 타격에 관해 느꼈던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냈는데 제 말이 맞다고 좋

게 될 수 있다고 말씀 해주셨다. 그 부분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했다”며 “내가 오랫동안 잘한 선수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시절에) 많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타격폼에 신경쓰기 보다는 수 싸움 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했었다. 변화구가 약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깊게 빠져들어서 타격폼도 3~40번 바꾸기도 했었다”고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그리고 베테랑 최형우의 조언도 최원준의 눈을 뜨게 했다.

최원준은 “최형우 선배가 연습 때 경기와 다르게 연습을 한다. 경기 때는 언제든지 담겨칠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밀어친다든지 하는 타격 연습하는 조언을 많이 해줬다. 그동안에는 여러 조언을 듣다 보니 혼돈이 와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타격 코치님도 비슷한 부분을 강조해서 연습 방법을 바꿨다. 연습 때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꾸준하게 기회를 받으면서 리드오프로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출루율’에 대한 답도 최형우로부터 얻었다.

최원준은 “많이 기회를 받으면서 적응이 됐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게 됐다”며 “출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을 일부러 안 치고 기다려보기도 했

다. 그런데 형우 형이 출루율이 좋은 타자인데 너무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치러다가 나쁜 공이 오면 거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14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최원준은 올 시즌에는 상황에 맞게 더 공격적인 주루에 나설 생각이다.

최원준은 “작년에는 뒤에 2~4번이 좋았기 때문에 도루할 상황이 많지 않았다. 시도 자체를 많이 안 했는데 올해는 상황에 맞게 공격적으로 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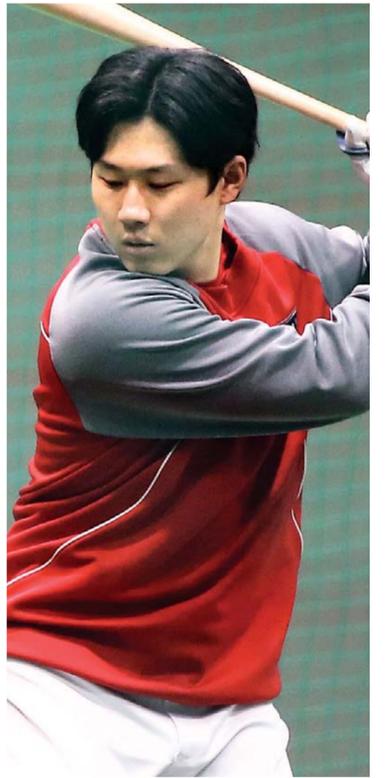
수비에서는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확실한 ‘외야수’로 자리를 굳히지만 터키의 1루 이동에 맞춰, ‘강권’ 최원준은 우익수 자리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원준은 “원래 외야수로 전향하면서 2군에서 우익수로 많이 했고, 편했다. 작년에 중견수로 실수 많이 하고 경험 쌓았는데 팀 상황 상 우익수를 맡을 것 같다. 적응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144’라는 숫자가 최원준의 머리에 있다.

최원준은 “이제 나이도 있고, 기회도 많이 받아서 결과를 내야 하는 때가 됐다. 진중하게 올 시즌 임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팀이 좋은 외야수들이 많아서 144경기를 다 나갈 수 있는 게 목표다. 144경기를 다 뛴 체력은 되어있다. 그동안 야구를 못해서 체력은 남아도는 데 다 뛰지 못했다”고 144경기 완주를 향한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투수들이 4일 챔피언스필드 볼펜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KIA는 국내 캠프에 맞춰 볼펜에 철골구조물을 세우고 난방기기를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울수록 뜨겁게 타오르는 KIA 캠프

жат 날씨 변덕에 외야 불펜 2곳에 천막... 투수들 피칭 앞서 수비 훈련

추위도 막지 못하는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다.

코로나19로 국내에 캠프를 차린 KIA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함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2021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주축 선수들 위주로 꾸려진 광주캠프단은 우려와 달리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겨울 많은 눈이 내렸던 탓에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지만 가볍게 캐치볼을 하고, 외야 러닝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덕분에 선수들은 실내 훈련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도 훈련을 소화하면서 본격적인 기술 훈련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특별히 준비된 ‘볼펜 훈련장’도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KIA는 챔피언스필드 좌우 외야 끝에 위치한 볼펜 2곳에 천막을 덮었다.

임시방편으로 천막만 씌운 게 아니라 철골구조물을 설치해 실내 공간을 꾸렸다. 마무리캠프 때부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프링캠프를 준비한 KIA는 볼펜에 난방기기와 조명도 설치했다.

투수들이 따뜻하게 볼펜 피칭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본격적인 피칭은 8일부터 시작될 예정

이지만 벌써 투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라운드 사정으로 수비 훈련을 할 수 없게 되자 투수들은 이곳에서 평고를 받고 있다.

수비훈련 중간중간 ‘커피네기’가 진행되면서 볼펜에는 웃음도 가득하다. 4일 워터마이어 수석코치의 지휘 아래 수비 연습을 한 투수진은 ‘커피네기’ 공 굴리기로 수비 훈련을 마무리했다.

홈플레이에 가장 가깝게 공을 붙여야 하는 내기에서 좌완 신인 장민기가 완벽 제구를 선보였고, 고영창은 가장 먼 곳에 공을 보내면서 후배들에게 커피를 사야 했다.

따뜻한 공간에서 웃음이 넘치는 훈련이 이뤄지면서 KIA의 광주 캠프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재열, 제2 ‘방출신화’ 쓴다



지난해 KIA 육성 선수로 입단 방출·사회인 야구단 등 ‘굴곡’ 8년 만에 생애 첫 1군 캠프 1군서 14경기...강속구 눈길 “독하게 반드시 살아남겠다”

KIA 타이거즈의 김재열이 또 다른 ‘방출신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KIA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2021시즌을 위한 스프링캠프를 하고 있다.

캠프는 똑같은 스케줄로 진행되지만, 광주 캠프에 먼저 눈길을 쏠린다. 1군 주축 선수들과 함께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지켜보기 위한 선수들로 우선 광주 캠프 명단이 구성됐다.

투수조에서는 처음 1군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는 이들이 많다. 프로 데뷔를 준비하는 ‘아기호랑이’ 좌완 이의리·장민기, 우완 박건우·이승재 그리고 2년차 ‘잠수함’ 김양수가 처음 캠프에 참가했다.

그리고 프로 데뷔 8년 만에 처음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도 있다. 지난 시즌 육성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고 1군에서 14경기를 소화한 우완 김재열이 그 주인공이다.

2014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롯데 유니폼을 입은 김재열은 그동안 많은 길을 돌아왔다.

방출의 아픔을 겪은 그는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했고, 야구 꿈을 놓지 않고 사회인 야구단에서 뛰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던 그는 강속구로 눈길을 끌며 KIA 육성선수로 다시 프로

세계로 돌아왔다.

그리고 김재열은 9월 6일 한화전에서 가슴 떨리는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오랜 기다림만 큼이나 떨리던 손이 먼저 화제가 됐다. 데뷔 전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이후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재열은 “처음 캠프 명단을 듣고 진짜 좋았다”며 “작년에 좋은 모습 남겨서 스프링캠프 참가하게 됐는데 지금은 행복한 마음인지, 기쁜 마음인지 모르겠다. 살아남을 생각밖에 없다”고 캠프 참가 소감을 밝혔다.

좋았던 기억을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비시즌을 보내면서 몸 상태는 최상이다.

김재열은 “계속 열심히 훈련했다. 작년 경험을 통해서 더 훈련하고, 트레이너님들이 가르쳐주신 거 다 따라 했다. 감독님이 스케줄 내주시는 거 다 하고, 근육도 잘 붙고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꿈같은 캠프라서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지만 ‘독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

김재열은 “캠프 처음 참가하는 신인들도 야구 잘해서 올라온 것이고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들이다. 올해 진짜 더해보자는 생각으로 벌리고 있다”며 “지난해 던진 것을 보면서 또 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더 코너 코너로 던질 수 있도록 제구에 집중하고 있다. 나머지는 코치님들한테 뺏아먹겠다”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또 “잘 던져야 한다. 안타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점 안 하고 내 장점이 씩씩하게 던지는 것 보여줘서 살아남겠다”며 “자신 있는 승부 그것 없으면 내가 아니다”고 자신 있는 승부를 통한 경쟁을 예고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